

# 가짜 환자에 '꽃뱀' 고의사고...돈 빼먹기 혈안

경주일보 공익 캠페인  
**보험범죄 뿌리뽑자**  
짙 날로 진화하는 사기 수법

#1. 병원 사무장 출신 A씨는 지난 2013년 한의사 B씨를 고용한 뒤 B씨 명의로 광주시 광산구에 한방병원을 차렸다. 의료인이 아니었던 A씨는 B씨를 '바치원장'으로 하는, 이른바 불법 '사무장 병원'을 차린 것이다.

A씨의 불법행위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주변인들에게 '가짜 환자'를 소개받아 진단서, 입·퇴원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주는 수법으로 4년간 요양급여 34억원을 챙겼다. 환자 165명도 보험사 38곳에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105억원이나 받아내다 경찰에 적발됐다.

이 과정에서 가짜 환자들은 이만큼 병실에 적어만 놓고 외출·외박 등을 자유롭게 했다. 특히 이들 중 일부는 초·중·고교에 다니는 자녀까지 허위 입원시키는 등 보험범죄에 동원했다가 자녀까지 범죄자로 만드는 파렴치한 행위를 저질렀다.

#2. 최근 광주에서 인터넷·스마트폰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신종 보험사기

**불법 사무장병원 수십억 챙겨 한방병원 절반이 호남에 집중 지역 이미지 실추...대책 시급**

를 벌인 이른바 '꽃뱀 일당'이 붙잡히기도 했다.

이들은 남성과 만나 술을 마신 뒤 성관계 등을 미끼로 숙박업소로의 음주운전을 권유했으며, 이 과정에서 미리 짠 공범에게 고의로 차량을 들이받도록 했다. 특히 '꽃뱀' 일당은 일방통행길 등으로 역주행을 하도록 유도한 뒤 사고 이후 중과실 사고 등으로 보험처리 요청 및 고액합의금을 요구했다. 이 같은 범죄수법을 입수한 광주경찰은 보험사기 피해자를 실독해 차량 블랙박스를 확보하고, '꽃뱀' 일당의 동선 등을 확보한 끝에 결국 검거했다.

광주·전남·북지역에서 보험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광주는 상대적으로 보험범죄에 취약한 한방병원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몰려있는 탓에 보험사들의 주요의 대상이 되고 있다. 보험사들은 지역 내 일반 보험 가입자에게 손실을 떠넘기는 한편 지역 이미지를 실추하고, 건강

보험 재정마저 악화시킨다는 점에서 악질 범죄로 낙인찍혀 있지만, 근절은커녕 신종 수법으로 진화하는 추세다.

지난 3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 따르면 올 3월 기준 전국 한방병원 296곳 중 49.3%(146곳)가 광주와 전남·북지역에 집중돼 있다. 광주는 98곳, 전남은 21곳, 전북은 27곳이다.

광주는 특히 인구 100만명당 한방병원 수를 기준으로 전국 평균 5.8곳보다 11배나 많은 65.2곳을 기록했다. 광주지역의 한방병원 증감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2011년 35곳에서 2012년 47곳, 2013년 57곳, 2014년 65곳, 2015년 79곳 등 매년 20%정도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기준 광주·전남 인구는 전국 인구의 6.6%로, 총진료비도 전국 총진료비 중 7.6%에 불과했지만 한방병원 진료비는 전국의 41%를 차지하는 기현상을 보였다.

보험업계는 보험사기가 빈발하는 광주 등에 있는 한방병원 중 상당수를 불법 '사무장 병원'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 병원은 정상적인 운영으로는 큰 수익을 내기 어렵다 보니, 각종 불법행위가 비일비재하다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불법 한방병원과 결탁한 보험설계사는 환자알선 등 브로커 활동(환자 1인 소개비 30만원 상당)을 하고, 병원 관련자는 허위 입원 교사 및 방조, 고액보험 영업활동, 현장조사 방해 등의 역할을 맡는 방식이다. 가짜 환자들도 허위입원과 허위치료 등에 동참한다.

보험사기 한방병원들은 경쟁병원에 환자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자유로운 외출·외박은 기본이고, 여행이나 미용 서비스 등 가짜 환자의 환심을 사는 다양한 노력 등에도 나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광주지역 내 일부 한방병원의 경우 개·폐업 기간이 짧아 보험범죄를 의심받는 상황이다. 올해에도 지난 5월까지 광주에서 신규개설한 한방병원은 17곳, 재개설 11곳, 폐업은 16곳이었다.

전문가들은 호남권에 한방병원이 난립하는 이유로 저렴한 병원 임대료와 한방병원의 특성상 고가의 진단·검사장비 등의 부담이 없다는 점을 꼽고 있다. 또 보험사기에 대한 관용적 사회적 인식도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큰 죄가 아니라는 인식이 아직도 사회에 퍼져 있다"면서 "특히 다른 범죄보다 처벌이 어렵고 처벌 수준이 약한 부분을 개선해야 할 대목"이라고 제안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 음주운전 VS 불법주차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불법주차 트레일러 들이받은 음주운전자 과실 90%

불법 주차한 차량이라도 음주 운전자가 들이받았다면 음주운전자의 과실이 더 크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박모씨는 지난해 2월 초 새벽 경기도 용인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9% 음주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 3차로에 불법 주차된 대형 트레일러 뒷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한모씨의 오른쪽 발목이 부러져 보험회사는 한씨에게 보험금 5346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보험회사는 불법 주차한 트레일러에도 과실이 있다며 트레일러와 공제 계약을 맺은 전국화물차운송사업연합회에 보험금의 절반인 2800여 만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김형률 판사는 "트레일러의 과실은 10%에 불과하다며 운송사업회가 5346만원만 A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



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음주운전자의 과실이 90%인 것이다.

김 판사는 "트레일러가 불법 주차한 곳은 박씨 차량이 2차로를 정상적으로 주행했다면 진입할 이유가 전혀 없는 지점"이라며 "사고가 난 장소는 적지 않은 가로등이 있어 주차된 트레일러를 발견하는 게 어렵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이런 상황에서 박씨 차량이 트레일러를 피하지 못한 건 결국 음주 운전 때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 출소하자마자 또 차량 절도 광주동부경찰, 20대 구속

광주동부경찰은 "교도소 출소 10여일 만에 차량 2대를 훔치고 주운 체크카드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상습 절도)로 서모(28)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 6월11일 오후 5시20분께 광주시 동구 학동 한 대학병원 내 은행에서 최초(25)씨의 체크카드를 주워 245만원 상당 금목걸이를 구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 6월에는 광주시 북구 두암동 한 아파트 주차장에 문이 열린 채 주차된 K5 차량을 훔치고 지난달 1일에는 광주시 남구 월산동 도로에 세워진 에쿠스 차량도 훔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차량 절도로 10개월간 복역하고 지난 6월 2일 출소한 서씨는 생활비와 유류비를 벌기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분실된 체크카드가 무단으로 사용했다는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통신수사를 통해 서씨가 동구 불로동 모텔에 투숙하고 있는 서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열거 당시 서씨가 당시 보유하고 있던 차량 절도의 출처 등을 추궁한 끝에 차량 절도 사실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서씨를 구속하는 한편, 여죄를 조사 중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불안한 원전 멈춰야” 시민단체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이 지난 31일 광주시 동구 YMCA 백제실에서 ‘영광한빛원전 5중 방어체계 무너지다’를 주제로 기자회견을 갖고 “안전하지 못한 원전은 지금 당장 멈춰야 한다”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영장없이 마약 압수...적법한 증거 아니다” 대법 무죄

검찰이 국제화물에 숨겨 들어온 마약을 적발·압수하고도 법원의 압수영장을 제때 받지 않는 바람에 마약 밀수업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이는 수사 과정에서 기본적인 인권 보장을 위해 압수·수색 등을 할 때는 적법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대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지난 31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로 기소된 마모(50)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정한 수출입 물품을 개봉해 검사하고 그 내용물을 취득한 행위는 범죄수사인 압수 또는 수색에 해당하므로 사전 또는 사후에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011년 6월 멕시코에서 필

로폰으로 추정되는 백색 가루 99.2g이 숨겨진 한국발 국제화물이 발견됐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세관 공무원을 통해 해당 화물을 넘겨받아 안에 든 필로폰을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따로 압수영장을 신청하지 않았다.

1. 2심은 “영장 없이 압수한 필로폰은 적법한 증거가 될 수 없고, 나머지 혐의도 범죄의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 옛 애인 살해 도주 60대 숨진 채 발견

### 고향 해남 아산서 목매

서울에 거주하며 옛 애인을 살해한 혐의로 도주 중이던 60대 남성이 고향인 해남 아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지난 31일 해남경찰에 따르면 지난 30일 오전 9시40분께 해남군 삼산면 봉화리 한 아산 산책로 인근에서 차모(68)씨가 나무에 목을 맨 채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조사 결과 차씨는 지난 28일 낮 12시에 서울 암사동 다세대 주택에서 옛 애인 김모(여·47)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 중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차씨와 김씨 모두 사망해 정확한 살해 동기는 파악되지 않고 있지만 경찰은 금전 문제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해 9월 차씨는 김씨가 “다른 남자가 생겨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이별여행으로 해남을 방문했으며, 당시 김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 서울로 돌아온 김씨는 살인 미수 혐의로 차씨를 경찰에 신고했으며, 해남경찰에 붙잡힌 차씨는 구속이 됐다. 차씨는 5000만원에 합의할 하기로 하고, 집행유예로 풀려났지만 돈은 주지 않았으며 김씨는 최근 합의금을 독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차씨가 김씨를 살해한 후 고향이자 부모님 묘소가 있는 해남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와 도주 경로 등을 조사하고 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 잠자리 거부 아내 폭행하고 출동 경찰에 행패까지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자신의 아내를 폭행하고, 출동한 지구대 경찰관의 얼굴에 침까지 뱉은 40대 남성이 경찰서행.

○...지난 31일 광주광산경찰에 따르면 A(41)씨는 지난달 30일 밤 10시30분께 광주시 광산구 자신의 집 안방에서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37)에게 자신

의 휴대전화를 던지고, 이를 말리던 고등학교 딸을 폭행한 데 이어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까지 욕설을 하고, 얼굴에 침을 뱉었다는 것.

○...A씨는 경찰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잠자리를 요구했는데 거부하자 순간 화가 났다”며 선처를 호소.

/\*김한영기자 young@kwangju.co.kr

### 부안 숙박시설(모텔)

여름성수기 펜션 영업가능

격포해수욕장, 해변가 5분  
대명리조트 5분  
토지 506평, 건물 430평  
(2개동 룸43개)  
월 수익 200만원 가능

감정가 16억  
매매가 10억 (용 6억 가능)

직매 010-7384-7800

### 수기동 상가(매매·임대)

20층 중 6층 (45평)

전변로 전망 최고  
리모델링 5천만 투자 무료제공  
보 1천만, 월 70만 / 즉시 임대 가능

1억 6천 → 9천8백 (용 5천)

### 영광 주택

급매 신축

광주에서 30분  
즉시입주 가능, 내부 깨끗  
토지 151평, 건물 42평

1억 1천 → 9,800만원 (용 2천)

010-6670-9800

### 대신경매

입찰부터 ~ 명도까지  
건설개발, 리모델링 전문  
(사무실) 상무지구 한국은행 맞은편

수익성 상가 추천 (기타)

- 북구 신안동 (10층 중 4층 상가) 토 13평, 건 34평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5천2백
- 동구 수기동 오피스텔 6층 토 6평, 건 24평 ▶ 감정가 1억 → 최저가 7천
- 첨단 오피스텔 (10층 중 7층) 토 2평, 건 11.7평 ▶ 감정가 9천2백 → 최저가 6천4백
- 북구 신안동 (8층 중 5층상가) 토 48평, 건 176평 음식점 프랜차이즈 시설완비, 권리금 없음 ▶ 감정가 9억9천 → 최저가 6억9천
- 북구 양산동 (아파트상가) 토 25평, 건 14평 ▶ 감정가 6천6백 → 최저가 6천6백
- 북구 오치동 (근린주택) 토 26평, 건 60평 ▶ 감정가 1억3천 → 최저가 9천
- 상무지구 4층 상가 전용면적 39평, 월세 240이상 ▶ 감정가 5억4천 → 최저가 1억9천

반값경매, 특수물건, NPL(다수있음)

062-527-7600

### 경매교육

① 기초이론반  
▶ 매주 개강  
경매기초부터 ~ 실전 입찰까지

② 실전투자반  
실전 교육듣고 바로 수익창출 하실분  
입찰부터 매매임대, 개발까지 원스텝강의

③ 프리코스반  
경매 부동산 같이 할실분  
서구 치평동 케이오피스텔 (상무지구 한국은행, 현대아파트 사이)

아파트경매물건 추천

- 서구 상무지구 상무버들중 (분양면적 24평) 감정가 1억6,300만 → 최저가 1억1천4백
- 서구 금호동 쌍용에 (분양면적 50평) 감정가 4억8,700만 → 최저가 3억4천
- 광산구 산월동 첨단 호반리전시빌 (분양면적 36평) 감정가 2억9백 → 최저가 2억9백

010-2699-5300  
062-382-5500